

경제정책동향 >>>>

김기희 / 대전발전연구원

최근 대전경제 동향

2007년 3/4분기 대전지역의 경제는 2007년 5월들어 상승국면으로 반전한 이후 9월까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뚜렷한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기업체의 10월 업황전망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1월에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물부문에 있어 산업활동은 2007년 1/4분기는 생산, 출하가 감소하고 재고가 증가하여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2007년 2/4분기는 생산 및 출하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는 등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에서 3/4분기 역시 호조세를 보였으나 다만, 9월 들어 추석명절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및 전년도 높은 증가세에 따른 기저 효과 등으로 다소 둔화되었다. 서비스 업종에서도 2/4분기에 이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민간소비는 소비재의 추석명절 이동 등의 영향으로 전월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며, 최근 소비회복세는 소득, 소비심리 등 소비여건 개선에 주로 기인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9월 중 시중은행 수신 및 여신 모두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은행수신은 예금부진, 대출확대에 따른 자금부족 충당을 위한 CD 및 은행채 발생 지속 등으로 전월 및 전년동월보다 모두 증가하였다. 10월 국고채 등 채권금리는 증시 상승,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상승하였다. 다만 3년만기 국채수익률은 하락하였다. 또한 어음부도율 및 부도금액은 전월보다 하락하여 기업자금사정이 호전되는 모습이며, 예금은행 산업대출비중도 전(년동)월보다 증가하여 기업 자금사정은 최근 양호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다.

대외부문에서는 수출은 9월말 현재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전월비 12.3%, 전년동월비 7.7% 각각 감소하였으며 수입 역시 전월비 25.0%, 전년동월비 8.6% 각각 감소하였으나,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감소 폭은 적은 편이다. 경상수지는 수출에 비해 수입이 크게 감소하여 흑자기조를 보이고 있다.

최근 고용사정은 최근 취업자는 생산활동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증가하였고, 실업자수

는 감소하여 실업률이 대폭 감소하였다. 특히 경기상승국면 지속에 따라 기업의 필요인력 확보 노력이 강화되면서 상용근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물가는 10월 중 106.1(2005=100기준)로 전월대비는 0.2%, 전년동월대비는 3.0% 각각 상승하였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와 금반지 등이 오른 공업제품과 재료비 상승으로 외식에서 오른 개인서비스, 기상여건 악화로 생육이 부진한 채소류가 오른 농축수산물의 영향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월비 소비자물가동향은 주요도시 평균과 같은 수준이며, 생활물가지수 역시 전월비 0.4%, 전년동월비 4.1% 각각 상승하였다.

2007년 3/4분기 대전의 경제는 산업활동의 호조세 지속, 민간소비에서 내수 확대, 고용부문의 개선, 기업자금사정의 야호 등 5개월째 경기 확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외거래 및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지역경기가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지만 경기상승의 속도와 정도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미국의 경기둔화, 중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 유가 상승 등 물가 불안요인도 상존하는 만큼 경기상황에 대한 각종 지표추이와 금융·외환시장 등의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히 점검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